

【 해외금융 뉴스: 유럽 】

Solvency II, 유로지역의 새로운 보험감독규정이 되는가?

□ EC 대표부와 유로지역 27개국 보험감독자들이 Solvency II 시행에 대한 협상을 재개함에 따라 유로지역 보험 감독규정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 Solvency II는 지난 30년 동안 유로지역 보험감독체제였던 Solvency I을 대체하기 위해 4년 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Solvency I이 모든 보험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급준비금 체계인 반면, Solvency II는 보험사가 보유하는 리스크 따라 지급준비금이 차별되는 체계임.
- 추진 중인 Solvency II에서는 유로지역 내 국경 간 보험감독에 대한 최종 책임을 보험사의 본사가 위치한 국가(Aviva(영국), Axa(프랑스), Allianz(독일) 등)에 일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유로지역의 주요 국가와 기타 국가 간의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협상 방식은 논쟁의 중심에 자리한 3자가 모두 참여하는 방식이며, 대안이 모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협상 결렬 시 유로의회에서 Solvency II에 대한 투표가 실시될 예정임.

- Solvency II에 대한 주요 협상자는 EC, 유로의회, 주변국들이며, 각 협상자는 추구하는 바가 서로 다른 상황임.
 - EC 대표부는 4년 전 Solvency II의 도입 필요성을 처음 주창하고, 법제화를 제안하였기 때문에 현재 법규 정비 완수가 목표인 상황임.
 - 유로의회는 법안 입안자로서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대한 감독원 강화에 지지하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 주요 다국적 보험사가 지지하는 상황임.
 - 27개국 중 절반에 해당하는 주변 국가들은 유로의회의 입장과 상반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18일 논의될 대안으로는 주요국가에 대한 감독권 일임을 1~2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Solvency II에 대한 협상이 연기될수록 수정 요구 사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 일부 국가는 협상 결렬을 원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프랑스는 사적연금과 같은 장기성 상품의 보유 자산 리스크는 단기성 상품보다 낮게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

(Financial Times 3/18, Wall Street Journal 3/18)